

잠언서에 나타난 유대인의 지혜교육

金天星*

〈目次〉

I. 서론	III. 결론
II 본론	후주
1. 지혜의 의미와 그 필요성	참고서적
2. 마음을 다스리는 자	Abstract
3. 미련한 자	

I. 서론

유대인은 약 2000년간을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diaspora의 생활을 하면서도 다시 모여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였다. 그 원동력은 다름아닌 유대인의 철저한 교육에서 나왔다고 하겠다. 그들의 교육내용은 성서가 기초이며, 그 가르침을 충실히 받은 후손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서도 그 전통을 지켜가며 훌륭한 민족으로서의 본보기적 삶을 보여주고 있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정서가 풍부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서가 풍부한 사람은 노래와 시를 사랑한다. 성서의 구약중 문학서와 선지서는 시의 형태로 쓰여 있다. 그들은 즐겨 이 시

* 경희대학교 관광대학 관광영어통역과 교수

1. 유대인은 B.C. 2000년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티나로 이주한 셈어족의 헤브라이인의 자손으로, 유 일 신인 여호와를 믿으며 선민사상과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모세 율법을 기초로 발달한 그 종교와 민족을 일컫는다. 언어는 헤브라이어와 영어를 사용한다.
2. diaspora란 바빌론 포로시대(586-536 B.C.) 이후에 나라를 잃고 팔레스티나 외의 지역에 흩어져 살며 유대의 종교규범과 생활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말한다.

가편을 읽는다. 시가편 중에서 솔로몬이 쓴 몇 권중 잠언은 세련된 문학적 표현으로 그 의미를 전달함이 유명하다. 솔로몬은 해박한 지식과 총명으로 여러 가지 소재를 서정적이며 교훈적으로 나타내어 그의 비상한 글쓰기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다. 이는 그의 지혜의 이론적 근거이고 식물과 동물세계까지의 광범위한 그의 해석은 그의 지혜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이라 할 수 있다. 그의 특유한 자연에 대한 관찰과 비유는 무심히 지나침이 없으며 이를 통한 만물의 이치를 깊이 헤아림에 이르고 있다.

구약 열왕기상 4장 32절에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일천 다섯이며”(관주성경전서, 대한성서공회, 1979, 400쪽)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그의 뛰어난 지혜의 가르침이 많은 양의 시편으로 서술되어 이스라엘 민족에 교육의 지침이 되어 왔을 뿐 아니라 서양인의 사고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잠언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인의 지혜를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잠언서는 그 문체에 있어 다른 구약의 시가서들과 다르며, 또한 지혜서들 가운데에서도 그 구조가 다르다. 그 문체는 명령체이며 훈계적이다. 그러나 설득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 듣는 이나 읽는 이로 하여금 그 교훈에 감화를 받아 더욱 그 말을 듣고 싶고 사모하게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랍비³가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것을 회중이 듣는 식으로 성서가 종교의식에 사용되었다.

잠언은 윤리와 지혜와 지식의 주된 寶庫로 사람에 대한 신앙적인 권고와 영적인 교훈과 실제 생활을 위한 윤리적 교훈과 명령과 법칙과 금언 등의 말로 이루어져 있다. 잠언은 그 첫 부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잠언 1장 7절, (1:7) 관주성경전서, 상계서, 이하에 나타나는 잠언의 인용은 이와 같이 장과 절만을 나타냄으로 표시하였다)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어, 하나님을 온이성과 지혜의 원천이며 주권자로 해석하여 절대 유일신 사상을 바탕으로 그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문학적이나 윤리적으로 표현된 의미를 해석함에 그 의미를 뒀으로 신학적 접근은 제외하고자 한다. 즉 성서적인 측면에서의 창조나 신성에 관한 교리보다는 가치 있는 윤리 내용과 지혜적인 면의 교육적 효과를 지침으로 표현한 내용의 관점에서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잠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비교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현인의 격언을 나타내는 말로 금언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잠언은 명확하고도 간결한 지혜와 윤리적인 말을 수록하여 놓았는데, 현대의 격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재치나 발랄함, 경쾌함 등의 요소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 진리의 묘사에 있어서는 훌륭한 분별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덕과 의무에 관련된 여러 개별 주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기저기 나타나기도 하여 지루한 감이 있기도 하다.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성서의 하나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위 지혜서라 불리우는 욥기, 잠언, 전도서에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이집트에서의 종살이에서 구하여낸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준 것, 가나안 정복, 또는 다윗왕조의 설립 및 계승 등에

3. Rabbi란 유대법을 신봉하는 유대인으로 1c 그리스도 시대에는 탈무드의 기초를 만든 정통 유대인을 지칭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훈련되고 성직을 받은, 유대인의 사회에 최고 지도자로서 카운슬러이며 어른과 아이의 교사이다.

관한 언급이 전연 없고 오로지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또한 잠언서는 예언서나 시편과 달리 신과 인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 잠언 저자는 본 서를 이스라엘 국민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각 개인이 만족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개인에 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세상의 성격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여 감을 본다. 이로 인하여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 타당한 우주적인 진리로 이해될 수 있겠다.

즉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미덕과 교육적 이론의 제시는 그 완벽함과 생동감은 어떠한 윤리서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다 하겠다. 잠언은 그 내용에 있어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경험의 토대 위에 쓰여진 글로써, 그 적용은 인간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 모든 관계와 각 상황에 따른 윤리적 교훈으로 받아들여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겠다.

II. 본론

욥기의 시편, 잠언서는 일명 지혜문학으로 불리우는데 그 중에서도 잠언서는 지혜서 중에 지혜서로 불리운다. 이는 잠언의 가장 큰 주제가 지혜이기 때문이다.

지혜를 얻어야 할 대상은 물론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겠으나 본 서는 특히 젊은이들을 일깨워 그들이 이 책을 젊은 날에 거울로 삼아 일생 동안을 지배하여 가는 가장 좋은 교훈서로 이용하게 하고자 함일 것이다. 솔로몬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 하리라”(22 : 6)고 하였다.

그는 잠언을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정의롭고, 공평하며 정직하게 행할 길을 지혜 속에서 찾도록 서두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1. 지혜의 의미와 그 필요성

사람이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 필요성은 무엇인가?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1:5)이라 하여 잠언서는 젊은이에게 무엇보다도 지식과 명철을 주고자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혜란 보편적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다. 즉 사물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근원적이고 본원적으로 분별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여도 많은 학식을 습득할 수는 있다. 또는 많은 학식으로도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이론적인 학식을 가짐으로 보다 깊이 사고하게 된다. 그럼으로 실제적인 학식을 증진시켜 보다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학식은 주의 깊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철학자 Aristotle은 듣고 보는

것을 가리켜 지식의 감각들이라고 표현하였다. 왜냐하면 학식은 이러한 감각의 문들을 통과하여야만 정신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엑셀펜저, 친구약 강해설교 연구대계 19권, 기독교회사, 1982, 24쪽)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혜가 모자라는 학식은 자기를 스스로 높여 자만에 빠질 수 있다. 이는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 분별력을 잃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선택의 시점에 이를 때에 어떤 것을 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험이 있는 것이다.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9:11) “지혜자는 권고를 듣느니라”(12:15).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들을 만한 권고를 구하며, 그것으로 그의 길에서 바른 판단을 내려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미혹의 길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이다.

지혜서의 저자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는 것을 가져 명철을 얻으라”(4:5-7).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나.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8:1-2)서 인석 신부는 “지혜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실천적 기술”(오늘의 구약성서 연구, 성바오로 출판사, 1983, 287쪽)이라고 하였다.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상식을 능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같은 지혜는 인문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물의 움직임과 인간행동에 대하여 세밀히 관찰하고 반성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혜와 비교하여 명철이란 사람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잠언 저자는 지혜를 바로 명철로 이야기하며 이를 의인화하며 그를 친구로 삼도록 여러모로 권고하고 있다. 지혜란 “나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8:12)라고 하며 명철을 바로 그 거주지로 해석한다. 명철(prudence)은 현명하고 사려분별이 있음을 말한다. 보편적 명철이란 도덕의 주된 목적인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라 하겠고, 이를 개인의 생활에 적용한다면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잘 고려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 하겠다. 즉 인생을 길에다 비유한 4장 12절에 “다닐 때”와 “달려갈 때”의 수사법은 참으로 적절한 은유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비유는 인생에는 끊임 없는 변화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인생은 한 방향으로 계속 전진하여 나아가야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 인생의 모든 날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상관이 있음을 알려준다.

사람은 그 인생길에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따라 가며 사는 것이 일상의 생활이다.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4:12)란 특이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일상적인 삶의 길을 천천히 갈 때를 의미한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날은 평범함의 날로 이루어진다. “달려갈 때”란 평상시와 달리 인생길에 어떤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때로, 흥분되거나 놀라운 일, 또는 어려움,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에 평상시와는 다른 많은 노력과 정열을 쏟거나 힘껏 달릴 때, 혹은 고심하여 어떤 일을 결단하여야 할 때 등이겠다. 이러한 때에 지혜의 길로 행하면 단조로운 인생길에서 싫증이 나서 다른 길로 미혹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어려울 때에도 그것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올 수 있는 법이

명철에 있다는 것이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는 지혜로운 자와의 동행을 또한 저지는 권면하고 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13:20) 동행한다 함은 다른 사람의 모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곤경에 함께 대처하는 것과 또는 助言과 助力을 구하고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혜는 군주가 갖추어야 할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요 덕이다. 이같은 자의 지혜는 현 삶의 문제 특히 정치에 긴요할 뿐 아니라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하여 백성을 현명하게 통치할 수 있는 덕행이다. 그리고 지혜가 지니는 통치의 기술은 군주를 보좌하는 君臣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하들 가운데 특히 임금의 조언자는 임금에게 조언할 지혜를 얻기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지혜는 매우 실천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처세의 지혜의 방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구체적 행위와 세상 사물의 변천에 대한 관찰과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식에서 출발한 이 지혜가 초기에는 실천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그것이 섬세한 심리묘사를 하는 것으로 미루어 차츰 思辨적 지혜로 발전하여 가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교화되어 그들의 마음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지혜자는 지속적으로 지혜를 쌓는다. 지혜를 더욱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지혜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지혜자는 또한 “지혜로운 사람을 얻고자 한다”(11:30).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유익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한 사람의 인격과 기질의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혜는 또한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그 가르침의 내용 중 솔로몬은 가장 큰 것을 부모에게 순종함에서 찾고 있다.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1:8)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6:20-23)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느니라.(13:1)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실천하여 그 아버지의 성숙한 모습을 닮아 간다. 흔히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데에서도 유익을 구할 수 없다. 지혜는 훈계에 의하여 얻어진다. 훈계를 좋아한다는 것은 겸손하여 자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여 가르침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훈계란 교육의 한 방법으로 반드시 지혜를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지혜는 바로 훈계의 목적이며 방편이기 때문이다. 목적과 완성은 방법보다 더 위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명철의 말은 사람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으로 우둔한 자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유대민족은 부모가 그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음을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보여준

다. 유대인의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인 선생님으로 부른다… 아버지란 히브리 단어는 그 사역 면에서 네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급자, 둘째 보호자, 셋째 지도자, 넷째 교육하는 자 혹은 훈계하는 자이다.”(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1권, 국민일보사, 1996, 244쪽) 자녀들은 가정에서 매 주 시간을 정해 놓고 철저히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다. 방문객이 오더라도 그 시간은 미루어지거나 소홀히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버지는 자녀 앞에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하여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인다. 자녀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사상과 생활풍습을 닮게 된다. 그들은 부모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여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에게는 세대차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한다.

홍일식은 한국인에게는 무엇이 있는가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핵심이 되는 것을 효사상이라 하였다.

“유교의 효사상이 우리에게 유입되기 이전에도 우리에게 효사상이라고 해야 할 사상이 본래부터 있어왔다”(정신세계사, 1996, 159쪽)는 것이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는 인간의 행동양식을 규제하는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고유의 효는 그런 규범이라기 보다는 신앙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것은 관념 문화로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쉽게 다른 것에 동화되거나 소멸할 수 없는 것이다”(상계서, 162쪽)라고 하였다.

그는 이 효사상의 예로 일본과 중국에서도 없어졌으나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사의식을 들고 있다. 유추컨대 그 효사상이 거의 神格化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제사 풍속도 오래 전에 없어졌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요즈음 핵가족의 시대로 들어와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효를 가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상전으로 떠받들므로 부모공경의 의식도 희박하여졌고, 또한 어른들이 제사의식에 후손들을 참여시키지도 않으므로, 몇 천년간 내려오던 우리의 제사의식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까는 의문시 된다.

잠언 저자는 계속하여 “아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15:5) “징계는 훈계의 또하나의 방법이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자”(12:1)라고 하였다. 징계를 싫어함은 모든 이성적 인간이 지녀야 할 속성, 즉 분별력을 결여함을 의미한다. 유대인은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계명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 중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중 가장 큰 것을 제 사 계명의 부모님께의 공경에서 찾고 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전계서, 관주 성경전서, 출 20:12, 이하 성서의 인용은 각 책의 첫자와 장과 절로 나타내었다)라고 하여 효를 생명과 장수의 복으로 약속하고 있다. 또한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출 21:17) “또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레 19:3)라고 하여 계속적으로 효를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이를 생활에 실천하여 부모공경이 그들의 삶에 최우선 자리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된다. 그들은 탈무드에서 효를 부모 경외와 부모공경으로 나누어 가르치고 있다. 부모님 경외의 정의는

첫째 자녀가 아버지의 자리에 앉지 않고, 둘째 아버지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셋째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공경은 첫째 부모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주고, 둘째 들고 날 때에 부축하여 드리며 받드는 것이다. (전계서 2권, 현 용수, 62쪽) 이들의 효의 실천양식은 이와같이 지극히 사소한 것 같은 데서부터 시작하여 확실하고 자세히 가르치고 있어, 그 적용 범위까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인에게 있어 부모공경은 현대 복지정책에 가장 큰 고민거리중 하나인 노후대책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해결책까지 제공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2. 마음을 다스리라

잠언의 중요성은 그 지혜를 금언적 형식으로 나타냄에 있어 실제 경험을 교훈적 내용으로 한 사실의 진술에 있어 인간의 지혜를 至高의 차원에 두어 그 질적 요소를 통한 영원한 지혜의 새로운 교통을 안내하고 있다. 저자는 지혜를 부보다 낫다고 하며 이를 얻기를 힘쓰도록 강조하고 있다. 사람이 지혜를 얻어야 함은 지혜는 인생의 여정을 바르게 안내하기 때문이다. 금을 찾아 애쓰는 사람은 그 마음이 탐욕스러워져서 인격의 저하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러할 때 지혜는 직관력으로 분별하여 바른 길로 계속 행하도록 인도한다. 한 번 소유한 지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줄 수 없다. 세상의 어느 것도 나의 머리의 지혜를 가져갈 수 없다.

금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나 잘못 사용하여 사람을 특히 젊은이를 타락시키는 동기를 제공 하는 원인이 되는 예를 우리는 흔히 본다. 또한 금은 우리가 사랑하여도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이 되지 못한다. 지혜는 우리의 마음과 조화되어 지식과 실천적 도덕의 어머니가 되기도 한다.

지혜는 사람에게 직관력을 갖게 하여 악에 대처하도록 도우며, 분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준다. 금이 있으면 이를 잘 사용하여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금이 없다 하여도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얻는 것이 지혜에 있으므로 지혜가 월등히 귀하다고 하겠다. 또한 지혜는 물질을 증가 시켜줌으로가 아닌 헛된 욕심을 감소시킴으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다. 自足하는 마음을 갖게하여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즐거움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유대인은 “현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상계서 1권, 307쪽)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금을 팔아 지혜를 삼아 재물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헛 책방이 없다고 한다. 그들은 한 번 책을 사면 그것을 팔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자는 책 속에서 사려깊음과 진지함과 남에 대한 배려와 예민함 등을 얻게 된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에서 집단교육의 결점은 각자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과학의 엄청난 발달로 학생들은 우주의 신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달나라 여행까지도 계획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몸 속에 일어나는 온갖 비밀스런 작용과 더욱이 신경계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 즉 정신세계의 복잡함은 실로 깨달을수록 놀라울 뿐 그 깊이가

한이 없다. 이러할 수록 더욱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4:23)라고 하였다.

인간은 욕망과 감정을 절제함이 중요하다. 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그는 행동하거나 행동의 원리가 결정되는 것이다. 마음을 지킴이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평안이 없으면 걱정이나 평안을 위협하는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렵게 된다. 인간의 의지는 결정과 선택의 능력을 가진다.

“의지는 인격의 능력이며, 감정은 인격의 아름다움이다” (전계서, 엑셀편저, 134쪽)라고 하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성과 지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자신의 능동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의 측면일 뿐이다. 지식은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 그것은 능력의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다. 능력은 지식의 범위에 있지 아니하고 도덕적 성격이나 그와 함께 나타나는 인격의 힘에 속하여 있다. 흔히 한국 사람은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 총명한 두뇌를 가지고 그 마음이 어리석은 곳에 이르러 자신의 不運을 가져오기도 한다.

한 인간의 성격형성에 있어 마음은 두뇌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성격의 문제는 지식이나 이해의 차이보다 기질이나 성향에 달려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마음의 다스림을 이성보다 중히 여겨야 하겠다. 신약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마 6:22)라고 하였다. 눈은 바른 마음자세로 이를 등불에 비유하고 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이 교훈을 생각하고 이 교훈에 비추어 빛나가지 않도록 하고, 어리석게 행한 후 일지라도 돌이켜 얼른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하겠다.

3. 미련한 자

옛 현자의 관심의 대상은 각 개인에게 혹은 그 마음에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비결을 주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현자들은 각 개인의 행동규칙이나 심리상태 혹은 교육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식은 가정에서 공회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이르러 적용속에서 구현된다. 이를 본 지혜서 저자는 가정생활과 남녀관계, 의복, 음식, 노동등에까지 그 사례를 들어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혜는 존경을 받는 노인들에 의하여 전수되고, 이야기와 함께 개인과 사회적 훈련으로 습득되고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Williams는 “지혜를 우주적 질서로 받아 들이고 어리석음을 무질서로 나타내었다.” (ed. Alter and Kermode,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Fontana Press, 1989, p.266) 이는 세상과 인간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질서관을 부과하여 개인이나 환경은 그 특정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추상적인 체계로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보수주의적 지혜로서 신봉되고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옹호되었다. 옛 이스라엘인들의 이러한 질서로서의 의미의 지혜는 어떤 사상가에게는 이와같이 적절히 이해되지 않고 질서에 반하는 지혜(wisdom of counterorder)로

변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의 요인으로 영향을 받음으로 풀이 된다.

특정한 개인이나 상황에 대한 지혜를 일반화하는 것은 개인의 경험이나 특정 상황에 모순이 된다는 것이고 이 전통은 결과적으로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힘을 잃게 되고 사회적 규범을 이끌어 내는데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잠언 저자는 지혜자와 대비하여 지혜롭지 못한 자를 미련한 자, 교만한 자 또는 어리석은 자로 부르며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미련한 자는 마음이 강박하여 약한 자를 돌보아 주거나 동정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교만한 자는 자신에게 무지한 자로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도덕적 관계에 소홀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이다. 인간의 처세를 다루는 모든 교훈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라고 가르친다. 이의 소홀함은 풍부한 부나 지식으로 정당화 되지 못한다.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는 자신이 부족함을 깨달아 스스로를 낮추게 된다. 교만은 만성적인 병으로 그 근원을 마음에 둔다. 그는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 두는 자로 자신의 높이를 보다 높이고자 애쓰는 자일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남을 깎아 내리며 사람의 칭송을 자신에게 돌리고자 하는 자이다. 또는 자신의 과거의 치적이나 검소함, 절제의 미덕을 자랑하거나 부유함, 성내지 아니함을 자랑할 수도 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을 나타내느니라”(13:16)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많아도 슬기롭지 못하다. 지식과 지각이 뛰어나도 이성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판단에 실수를 초래한다. 도덕성의 의식은 심사숙고와 지적능력의 훈련 없이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본성을 연마하고 연단을 동반하여 이웃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지식을 동원한다.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1:4)의 어리석은 자란 공정한 판단력이 결여된 자로 모든 일을 바로 시험하여 볼 능력이 부족한 자이다. 그는 마음이 순진하고 단순하여 무슨 일든지 쉽게 생각하여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우며 또는 지나치게 믿어 버리는 자이다. 유대인의 사상 중에 동양 사고와 흡사한 또 한 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국의 中庸의 道 사상과 상통함을 볼 수 있다. 유학의 경전 四書 중의 하나인 中庸에서 송나라의 유학자 정 명도는 “中은 치우치지 않음이고, 庸은 바뀌지 않음을 말한다. ... 중이라 해서... 중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알맞은 도리나 예의가 바로 중이다. 그렇다고 優柔不斷하거나 소극적인 처세관을 중이라고 하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적당한 타협이나 절충은 더욱더 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무조건 원만하라는 것도 중의 한 부분일 뿐 곧 中庸이라고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서근석, 中庸, 1992, p 43쪽) 이는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고의 균형을 다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슬기로운 자는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선한 슬기의 경험을 쌓아 가는 자를 일컫는다. 플라톤은 “완전한 자유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지혜로, 이는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하는 원리이다. 둘째는 공의로서, 이는 공적, 사회적 생활에 모두 적용되는 행동원리이다. 셋째는 불굴의 기상으로, 이는 위협에 직면하여 회피하지 않고 과감히 맞서는 원리이다. 넷째는 절제로서, 이는 욕망을 다스리는 원리이다”(전계서, 엑셀편저,

341쪽)라고 하였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며”(12:16) 자기가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일을 아는 체한다. 또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에 덤벼들어 일을 벌리기만 한다. 이는 플라톤의 자유의 첫 정의에 해당되는 원리이다. 그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욕망의 노예로 자신을 전락시킨다. “또한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룸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21:24). 교만한 자는 그의 자만심 때문에 지혜를 얻고자 하지 아니한다. 자만은 올바른 사고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릇된 사고는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여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다.

잠언을 기록할 당시 솔로몬은 명예와 지위, 부, 지식, 즉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후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가진 후에 스스로 높이기 쉬운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경계하여 더욱 승화시켜 그의 웅변으로 지혜의 능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써서 지혜서로 남겼으니 그의 지혜가 지혜자들 중에 으뜸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지혜가 가려져서 죄를 가벼히 여기는 자를 경고하고 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14:9)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죄라고 한다면 미련함이란 그 죄상을 가벼이 여기는 자라 하겠다. ‘심상히 여긴다’ 함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죄란 윤리적인 죄와 더불어 범죄의 행위를 다 포함한다. 이들은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변명을 늘어놓는다. 첫째로 그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남들도 같은 행위를 하여 자기들도 다만 관습적인 일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함으로 그들의 행위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그들의 죄의 행위를 방어하고자 한다. 그러나 죄란 한 번 지음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유혹에 말려들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 성질의 달콤함 때문일 것이다. 어리석은 자란 분별력이 없어 선불리 그러한 행위에 행동을 같이 하는 자들이다. 그는 그 행동거지가 건전하고 명확한 판단에 의하지 못하여 점점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이다.

또한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입을 지키지 못하는 자로 그의 말이 많음으로 인한 실수를 저지르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말은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이다. 언어로 사람의 생각이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능력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저야할 의무도 따르고 있다. 마음 속의 말과 입의 말이 달라서는 아니된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11:19)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스스로 보전하느니라.”(14:3)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느니라.”(13:3).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말재주의 능력에 대하여 스스로 긍지를 가져 그들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날카로운 대답과 예리한 반박을 좋아하며, 이러한 말로 상대방을 압도시키기도 한다. 동물들에게는 언어가 없다. 그러므로 동물은 술책도 쓰지 않는다. 입을 통제하여 말썹이 나지 않게 함이 입을 지키는 자이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21:23). 자신의 혀를 항상 경계하고 조심함으로 환난을 면하여야 한다. 올바른 사고와 판단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이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불평으로 가득 차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 만 들기를 좋아한다. 그 불평은 사회적으로 존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에게는 그의 말을 들어줄 친구 가 없어지게 된다. 그는 미련함을 깨우쳐 줄 안내자를 얻지 못하게 된다.

Ⅲ. 결론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서삼경이나 한국학 등의 고전 강좌가 인기를 얻고 있다. 고리타분하게 만 들리던 옛 학문이 다시 중요시되고 강좌의 폭도 넓어지고 있는 이유는 정신문화의 고갈로 인한 사회갈등을 인문학과 우리의 옛 전통 속에서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고전 속에 나타난 지혜를 연구하여 봄이 시기 적절하다고 하겠다.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지혜롭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각기 인격이 다양하고 성격도 가지가지이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여 취하여야 하는가 주저하게 된다. 잠언은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警句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이는 유대인들이 연구하고 실생활의 지혜를 얻는 귀한 보고인 것이다. 잠언서의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지혜이나 이와 더불어 어리석음, 자만과 대비하여 이야기하고, 재물, 가난, 입의 조심, 또한 사랑, 욕망, 게으름에 대한 경고, 친구 사귀, 가정 다스리기, 현숙한 여인 등에 대한 교훈을 두루 다루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큰 주제만 세 가지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이 책에는 인간 속에 대두되는 모든 관계를 거의 언급하고 있어 그 교훈은 모든 사람이 듣고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의 중요성은 금언적 지혜의 형식으로 실제 경험을 교훈적, 종교적 토론을 내용으로 하여 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인간의 지혜를 至高의 차원에 두어 그 질적 요소를 통한 영원한 지혜의 새로운 교통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 지혜는 머리나 마음으로만 지니는 지혜 이상으로 인간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여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개발시켜 주는 지침서이기도 하다. 유대인의 교육법은 지혜를 얻는 책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實事求是의 그 정신이 섬세한 실생활의 면까지 반영되어 “책 갈피에 표지로 끼우는 물건은 책을 상하지 않는 것을 쓰도록 하라”(토케이어, 유대인의 처세술, 1981, 44쪽)할 정도까지의 적용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

지혜는 우리 인간이 걸어야 할 참된 길이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 존재의 가장 선한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며, 우리에게 知的 풍요의 즐거움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여 준다. 지혜는 인간본성에 그 원리를 두어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그 예절의 본보기가 되어 모든 입장과 환경에서의 탁월한 처세술을 가르치기도 한다. 진정한 의미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인간이 이를 수 있는 존엄함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서 근석, 중용, 풀잎사, 1992.
- 2) 서 인석, 오늘의 구약성서연구, 성바오로출판사, 1983.
- 3) 엑셀번저, 신구약 강해설교 연구대계 19권, 기독교지혜사, 1982.
- 4) 이 기석역해, 명심보감, 홍신문화사, 1997.
- 5) 최글러번저, 배 영철역, 잠언.
- 6) 최 준식,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사계절, 1997.
- 7) 토케이어, 인 병선역, 탈무드, 청림사, 1994.
- 8) 토케이어, 홍 건식역, 유태인의 처세술, 문화서적, 1981.
- 9) 현 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1,2권, 국민일보사, 1996.
- 10) 홍 일식,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1996, 정신세계사.
- 11) 관주성경전서, 대한성서공회, 1979.
- 12) John B. Gable and Charles B. Wheeler. The Bible as Literature. Oxford Univ. Press. 1990.
- 13) Robert Alter & Frank Kermode.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Fontana Press. 1989.
- 14) Stephen Prickett & Robert Barnes. The Bible. Cambridge Univ. Press. 1991.
God's Word. World Publishing Inc. 1995.

Abstract

Jewish Education of Wisdom shown in the book, the Proverbs

Kim, Chun-sung

The Jews had had lives of diaspora for almost 2000 years dispersed all around the world. But they had gotten together and reestablished the nation Israel.

The fundamental power of reunification came from the spirit of their thorough education. The contents of their education are based on the Bible.

Among the Bible, the three books, the Job, the Ecclesiastes and the Proverbs are called the books of liberary works. And the book, the Proverbs written by King Solomon is famous for the teachings of wisdom. It contains ethical instructions, religious advice, wisdom and all the teachings in the way of life.

Even though it lacks some elements of vital wits in modern feelings, its rich understanding and teachings of life overwhelm all the western and oriental readers. This thesis studied the meaning of wisdom in the Proverbs and Jewish teachings of it and its need and how to apply it to our practical life today.